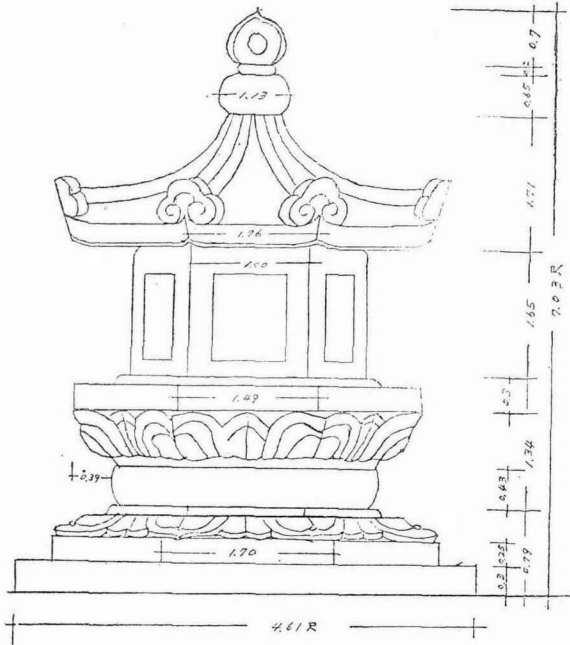


驪州 神勒寺 逸名浮屠內 發見 舍利盒

鄭 良 謨

一九六六年 十一月 十七日 神勒寺境內의 北便구릉 넘어에 있는 浮屠 三基를 境內寺利中心部로 옮기는 作業中 一基內에서 舍利盒이 發見되어 이를 鑑定하였기 여기 紹介하는 바이다.

舍利盒이 發見된 浮屠는 三基中 第一 큰 것으로 筆者가 一九六三年에 畏友 金東賢氏와 더불어 驪州郡內의 國寶建造物實測調査時에 一瞥할 機會가 있어 여기 略實測圖를 添加하여 둔다. 實測圖에서와 같이 羅代로 부터 내려오는 通式의 浮屠로서 頂部에 寶珠가 있고 이 寶珠를 바로 一



神勒寺 逸名浮屠

個의 寶輪이 받고 있

으며 그 밑에 커다

란 覆鉢이 있다. 이

相輪을 받치고 있는

屋蓋石은 八角으로

각 마루끝에 귀꽃을

달고 있다. 浮屠身

은 亦八角으로 相對

하는 兩側에 鎖金形

을 中心으로 梵字를

陽刻하였다. 塔身을

받고 있는 上臺石은

八瓣의 仰重蓮으로

되고 그 밑의 中臺

石은 窄은 圓筒形이

다. 地臺石과 下臺

石은 丸돌로, 下臺

石은 亦八瓣의 重蓮

伏瓣으로 地臺石은

四角이며 下臺石은

八角으로 彫出하였다.

舍利盒은 松廣寺의 慈靜國師妙光塔中 發見의 靑磁象嵌雲鶴文盒子

와 비슷한 形態로서 慈靜國師舍利盒은 뚜껑과 밑좌의 上·下面은 扁平

하고 側面에서 上·下面에 이르는 中間에 各其斜面을 두었다. 여기 反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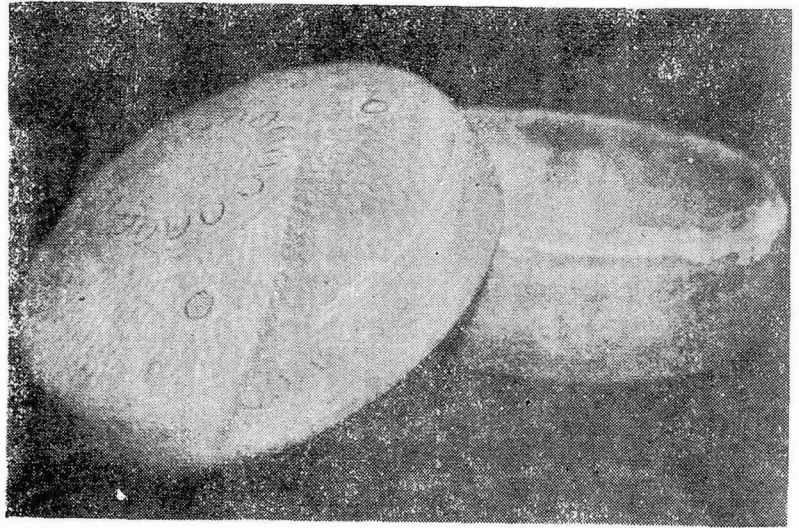
表題의 것은 垂直의 側面에서 上·下에 이르는 面은 그냥 둥글게 하고

여기서부터 뚜껑의 上面 中央에 이르기 까지 全體的으로 약간의 傾斜가

있어 頂部가 약간 볼록하다. 밑좌는 慈靜國師舍利盒의 境遇 굽이 없는

데 여기서는 竹節굽이 彫出되어 있다. 文樣은 뚜껑에 있어 上 中央에 커

다란 落花瓣一個를 白象嵌하고 이를 中心으로 二重圈으로 面을 三分하여



連珠、蓮瓣、雨點、重圈文 등을黑白象嵌으로 나타내었다. 側面은 위에 鋸齒形의 菊花瓣帶를 아래에 완자文帶를 두었다. 밑좌에서는 側面에 위에 口緣部에 連하여 완자文帶. 그 밑에 커다란 菊花瓣帶를 두었고 그 밑에 蓮瓣文帶를 두어 이를 黑白象嵌으로 나타내었으며 上·下의 蓮瓣內에는 二―三點의 白象嵌點을 찍고 있다. 釉藥은 연회색을 머금은 靑磁料로서 微細한 氷裂이 가 있으며 뚜껑과 밑좌 一部의 溶融狀態가 極히 不良하다. 이 舍利盒은 浮屠身의 下部와 上臺石의 中間에 있었다 하나 裝置 狀態는 알 수가 없다.

이 浮屠가 失名이기 때문에 年代를 的確히 알 수 없음을 심히 유감스러우나 浮屠의 樣式으로 볼 때 頂部의 寶珠가 同寺內의 普濟尊者 石鍾頂部의 것과 거의 같고 其他部分은 通式에서 退化되고 간략화되고 全體의 으로 中庸한 모습을 들어내고 있어 麗末의 것이라 하는 것은 알 수 있으며 寶珠自體도 普濟尊者石鍾<sup>②</sup>의 것보다 약간 退化된 手法를 보여 주어 石鍾以後의 것으로 보고자 한다. 또한 新增東國輿地覽 卷之七 驪州牧佛宇條金守溫란에 「(上略) 昔玄陵王師懶翁、韓山牧隱李公二人、相繼來遊由是寺遂藏左名利、越成化九年、大王大妃殿下、命有引因舊更創、賜額報恩(下略)」이라 한 것을 보면 懶翁과 牧隱以後에 名利이 되었고 成宗四年(一四七三)에 가서 更創한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이만한 規模의 堂堂한 浮屠가 세워지려면 亦懶翁、牧隱以後에 名利이 되고 高僧의 相繼함이 있는 然後에야 있을 수 있으리라 생각되는 바이다.

舍利盒은 그 形態에서 慈靜國師舍利盒보다는 李朝의 此種 盒形<sup>③</sup>에 가까운 것으로 특히 굽은 李朝磁器의 特質인 竹節굽을 하고 있다. 또한 紋樣에서는 커다란 菊花瓣이나 雨點文·완자문 등은 麗末·李朝初에 걸쳐 많이 使用되었으며 蓮瓣內의 點은 麗末의 靑磁象嵌窯址의 破片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鋸齒文形菊花瓣은 李朝에 들어와 初期粉靑沙器에서 많이 使用되고 있다.

以上 몇가지의 形態乃至 文樣에서 推定하건대 麗末·鮮初의 特徵을 함께 지니고 있어 大體로 一三九二年을 前後 數十年間에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한다.

盒直徑 一七·一 cm 뚜껑높이 五·五 cm 밑좌 높이 八·一 cm 굽直徑 七·二一八·〇 cm 總高 一三·〇 m

註

- ① 「年代의 極めて 明存る 高麗象嵌靑磁と彫三島」陶磁六卷六號 中尾萬三 一九三四·十二月 東京
- ② 國寶圖錄 第五輯 石塔篇 圖版一一六面 同解說 七〇面
- ③ 朝鮮古蹟圖譜 十三卷 二一四三面 六一二號、二一四六面 六一二五、六一二六號

### 堤川長樂里模塼石塔基壇部調查

姜 仁 求

長樂里七層模塼石塔은 文敎部에 依하여 六七年 六月 二十三日에 寶物 第四五九號로 指定되고 이어 六七年 十二月 부터는 全面解體修理에 着手하여 現在 施工中에 있다. 塔身部는 六八年 一月까지 解體를 完了하고 基壇部는 解水期를 기다려 今年 四月 十九日부터 再開하기에 이른 것이다. 本來 本工事は 秦弘燮、崔熙淳、兩文化財委員과 孟仁在 專門委員이 監督調査하기로 된 것이나 筆者도 基壇部 解體調査에 參與하게 되어 여기에 그 調査結果를 記錄하여 두고자 한다.

#### 一、構造 및 地層位(圖一、二)

基壇部는 塔身의 規模나 構造에 比하여 簡略하여 一層身部 下端에 바로 地臺石을 設置하여 地下部와 連結하고 塔身部의 荷重을 받도록 되어 있다. 이 構造가 基壇部構造의 全部로서 地臺石은 南半은 커다란 板石 一個를 놓고 北半은 四個의 長臺石으로 連結하여 놓고 다시 東側 西端 一個를 따라 三個의 돌로 補完하여 全體의 方形을 맞추었다. 그리고 板石과 長臺石이 서로 接合하는 處는 서로 잘 맞도록 다듬어 끼웠다. 板石 間은 中間이 南北으로 切斷되었으나 外部側面과 上面은 잘 治石하였고 두께도 三·八 cm나 된다. (圖一) 長臺石들은 老衰하고 治石狀態도 대체로